

오늘의 유머

▲아내의 매력

아내가 남편을 보며 물었다. "당신은 내 모습 중 어디가 가장 좋아? 예쁜 얼굴이 아니면 잘 빠진 몸매야?" 아내의 질문을 받은 남편은 찬찬히 아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 본 뒤 대답했다. "응 당신의 유머 감각."

▲여자가 사는 재미

두 남·녀가 맞선 자리에서 만났다. 남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혹시 담배 피우시나요?" 여자가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다. "어머, 저 그런 건 못 피워요." "그러면 술은 어떠십니까?" "어머, 저 그런 건 입에도 못 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애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연애요? 전 아직까지 남자의 '남'자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정말 순진하시군요. 저야 솔직히 반갑긴 하지만... 그럼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호호호,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아요."

▲노동의 의미

사무실에서 부장과 다른 부서의 부장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부장의 친구가 먼저 말했다. "밤에 하는 그거는 노동이야. 그야말로 아내를 위한 봉사지!" 그러자 부장이 맞장구를 치면 말했다. "맞아! 그거야 말로 중노동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는 참으로 희생적이야. 가정을 위해 이런 노동도 서슴지 않고."

한참 얘기를 하던 부장이 옆에 앉아있던 젊은 사원에게 물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젊은 사원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게 노동이면 니들이 하겠냐? 당근 날 시키지..."

▲엄마의 한마디

엄마와 백수 아들이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TV에는 한 도예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도예가가 실패한 도자기를 가져와서 깨버리는 것을 진지하게 보던 엄마가 아들을 힐끔 돌아보면서 중얼거렸다. "부럽네. 실패작을 저렇게 간단하게 처분할 수 있구나!"

▲선생님의 건망증

건망증이 무척 심한 선생님이 있었다. 어느 날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서서 자신이

출석부를 깜빡 잊고 가지고 오지 않은 걸 알았다. 선생님이 반장을 찾으며 말했다. "반장,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좀 가져와." 반장이 교무실로 간 사이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 보며 한 마디 했다. "이 반에는 반장도 없나! 왜 인사를 안해?" 당황한 학생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반장이 출석부를 들고 교실로 들어왔다. 이를 본 선생님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년 뭐야,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와?"

▲글짓기 대회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 글 짓기의 주제는 '내가 대통령이라면'이었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작품이 있었다. 단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작품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만일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나는 지금 여기 이 글짓기 대회에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시골벽적 e-스타



멜라민 걱정없이 먹는 술빵 만들기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했는데, 요즘 먹을거리 때문에 골치가 아픈다. 미국발 쇠고기 파동에 이어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나라가 시골벽적이다. 잊혀질 만하면 나오면 불량 식품들 때문에 주부들의 눈과 손이 바빠졌다. 음식 하나를 사면서 꼼꼼히 식품 성분을 찾아 봐야 하고, 애들 간식거리까지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할 형국이니 멜라민 걱정 없이 먹는 술빵 만들기는 동영상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간단하게 술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동영상으로 등장해 네티즌의 주목을 끌고 있다. 재료와 만드는 법도 간단하다. 밀가루(강력분) 250g, 설탕 2큰술, 소금 1작은술, 생이스트 3g, 올리브유 1큰술, 호두, 건포도 그리고 술빵의 핵심 막걸리 200g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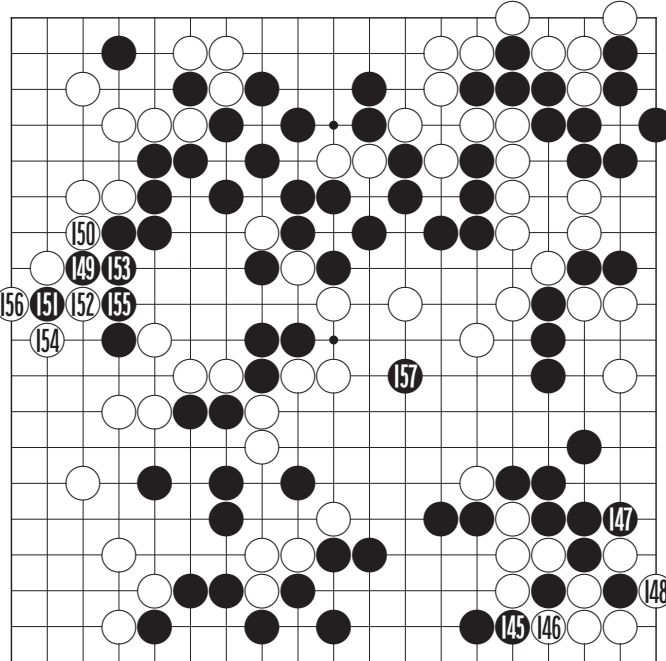
막걸리를 살짝 데운 다음 설탕·이스트·밀가루·올리브유·소금을 넣고 표면이 매끈매끈해질 때까지 반죽을 하는 게 첫 단계. 그릇에 담긴 반죽을 랩으로 싸서 상온에 1시간 정도 놓고 발효 시킨다. 이때 반죽이 솟을 수 있도록 숨 구멍을 뚫어 주는 걸 잊지 말자. 발효가 끝난 반죽은 다시 조물조물 주물러가며 가스를 빼준다. 맛갈스런 술빵을 위해서 2차 발효가 필요하다. 종이컵에 반죽을 골고루 나누는 뒤 랩으로 싸서 20분간 상온에 둔다. 그리고 준비해 놓은 호두와 건포도를 반죽 위에 송송 뿌려 놓으면 반죽 과정은 모두 끝이 난다. 준비된 재료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찜통에 넣고 25~30분간 푹푹 찜주면 된다. 젓가락으로 반죽을 찔러 보았을 때 반죽이 부서지지 않으면 '엄마표' 건강 술빵이 완성된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아마최강부 결승

선수를 잡기 위한 공방

개인전 준결승 10보(145-157)

白 신계성 6단 黑 심재욱 6단



중앙에서 대변화가 일어났으나 아직도 변수가 많아 형세는 오리무중이며 이제부터가 중요한 장면이다. 심재욱 6단은 흑 149로 좌변을 붙여 갔는데 이곳은 백이 155에 두어 흑 한점을 잡는 수를 얹어 수로 엄청나게 크다. 이곳은 중앙을 두는 것과 맞바기의 곳으로 이곳에서 누가 선수를 잡느냐가 쟁점이다.

신계성 6단이 선수를 잡기 위해 150에 두었을 때 흑 151로 되갚힌 수가 심재욱 6단의 재치를 보여준 수로 좋은 수였다. 이 수의 효과로 아슬아슬하게 선수를 뽑아 157로 중앙의 급소에 입격을 가해서 형세를 혼돈상태로 몰아넣는데 성공했다. 사실 백 150은 손짜라 둔 수로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중앙을 보강하는 것이 좋았다. 흑이 계속해서 좌변을 두면 3로 밀어 '가'와 '나'를 맞바기 백 유리 국면이었다. 이렇게 되면 중앙에는 오히려 백집이 붙을 가능성이 있었다. 급소를 얻어맞은 선 6단의 고심하고 있는 장면이다.

<참고도>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변경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9일(음 9월 11일 壬午)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October 9th, 2008,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photo of a couple and product information.

Table of language learning materials including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sections with exercises and answers.